



부안교육지원청 연계, 부안중 학생 직업체험 운영

부안군군은 지난 9일 부안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2026년 지역기관 연계 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안중학교 학생 24명과 교사 2명을 대상으로 군청 견학 및 공무원 직업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을 방문해 직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부안교육지원청이 마련한 진로체험 활동으로, 부안군은 체험기관으로 참여해 공식 분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학생들은 군청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부서별 주요 업무를 소개받고,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행정의 역할과 공직자의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부안군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사회복지 분야의 역할과 현장을 체험하며 다양한 직업 세계를 접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자원봉사박람회, 남원고에서 열려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제6회 남원시자원봉사박람회가 지난 10일 남원고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며 공동체 의식과 남원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 남원고등학교 학생 337명이 참여하고 지역 21개 기관·단체가 24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1365자원봉사포털 홍보 △세대공감 노인·장애인 인식개선 △폭력 및 자살 예방 △금연 캠페인 △공예 및 과학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큰 호응을 얻은 '자원봉사 체험 나눔부스'에서는 학생들이 공기정화식물을 심고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완성된 화분 150개는 금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수난장비 현지적응훈련 실시

남원소방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난사고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요천변 일대에서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수난장비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국지성 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고, 구조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 대원들은 구명부환과 드로우백 등 기초 인명구조장비를 활용한 실전 훈련에 매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읍지사협, '1촌이랑 장수 한바퀴' 치유의 숲 나들이

1인 취약가구와 협의체 위원이 함께한 산림치유... 정서적 교감과 지역공동체 유대 강화

장수군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점욱)는 지난 9일 협의체 위원과 1인 취약가구 결연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한 '1촌이랑 장수 한바퀴' 사업의 두 번째 일정으로 '치유의 숲 나들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1촌이랑 장수 한바퀴' 사업은 협의체 위원과 1인 취약가구 결연 대상자가 장수군 7개 읍·면의 문화·관광·자연 자원을 함께 둘러보며 지역의 다양한 명소를 체험하는 장수읍 특화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숲길 산책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연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협의체 위원들과 결연 대상자들은 함께 이동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점욱 위원장은 "참여자들이 숲속에서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이번 나들이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문철 읍장은 "고독사 예방은 단순히 어려움을 살피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이 서로 돌보고 함께하는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숲길 산책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연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협의체 위원들과 결연 대상자들은 함께 이동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점욱 위원장은 "참여자들이 숲속에서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이번 나들이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문철 읍장은 "고독사 예방은 단순히 어려움을 살피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이 서로 돌보고 함께하는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2026년 상반기 민원후견인·2분기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3명 시상

장수군은 10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2분기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적극적인 민원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후견인제 운영 분야에서는 민원과 장문정 팀장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으며, 민원처리 기간 단축 분야에서는 물관리과 서한결 주무관과 환경과 노인혜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중견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민원인에게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누적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



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민원후견인제와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신속하고 친절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상전면지사협, 어르신 삼계탕 나눔 행사

진안군 상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종석, 이하 상전면 지사협)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뜻깊은 보양식 나눔 행사를 펼쳤다.

상전면 지사협은 10일 점심 상전면 365화합센터에서 관내 어르신 250여 명을 모시고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나눔을 위해 21명의 협의체 회원들은 행사 전날부터 직접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며 정성을 쏟았다.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기적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상황버섯, 엄나무, 오갈피, 인삼 등 몸에 좋은 한약재를 듬뿍 넣고 푹 고아 낸 삼계탕을 정성스레 대접했으며, 후식으로는 제철 수박을 올려 시원함까지 더했다.

한편, 상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관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촘촘한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계농협, 취약계층 농업인에게 간편식 꾸러미 전달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은 지난 10일 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정현주)와 함께 취약계층 농업인 35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은 '우리 농산물 간편식 꾸러미'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농민의 마음(農心)이 곧 하늘의 마음(天心)'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평생 땅을 일구며 우리 먹거리를 지켜온 고령 및 취약계층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식사에 대한 불편함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도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임실소방서,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에어컨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집중호우로 인한 화재·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 마련됐다.

임실소방서는 수련시설, 도서관, 영화상영관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관서장 현장 행정지도 실시 △사회화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안전관리 소통 체계 유지 및 안전정보 공유 △여름철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시행한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6645-9935

중앙지사

010-9088-66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8329-6677

익산지사

858-98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6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882-6157

무주지사

010-4172-3000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